

#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도 힘 모은다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제사업으로 추진해달라 촉구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하 초등연맹)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이하 사관학교)'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초등연맹 측은 '제1회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이 시작된 지난 11일(~14일 / 품새 및 겨루기 / 참가선수 2천여 명)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무주군으로부터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기(國旗) 태권도의 위상과 △태권도가 처한 현실과 위기, △태권도 재도약을 위한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필요성을 어필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최원열 회장은 "태권도가 제2의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제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며 "우리 연맹은 사관학교 설립이 정부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태권도는 210개국 1억 5천만 명이 우리말 인사, 구령과 함께 수련을 하는 한류의 원조라는 점을 강조, △전 세계로 한류와 문화영토를 확장하고 △집적 변화와 세계화를 통한 국익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평화 및 인류번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기에 사관학교 설립을 제안한다면 서 반드시 국제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은 현재 제20대 대선 전복공약 제안사업으로 반영이 된 상태로, 그동안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와 시·군 의회 의장단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전북태권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시·도지부 등 각처에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에 나서고 있으며 무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사관학교 설립 지지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4월

에는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여론 형성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태권도계를 결집시키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2.4.)과 국기원(3.9.), 대한태권도협회(3.31.),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8.12.)등과도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6월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Again 태권도를 위한 U-프로젝트(이하 U-프로젝트)'로 명명한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1월에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정진욱) 및 위원들이 국회를 방문해 '태권도 샌드위치(샌드위치 신세의 태권도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목적 '태권도 살려', '샌드위치 태권도 이대로 두실 건가요?' 스티커 부착)와 무주군수 명의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호소문을 전달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상권 활성화·경기 부양이 민생 지상과제"

###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

윤정훈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을 통해 민생 7기 주요 군정 지표들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인구문제, 농업·관광 등 주요사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진 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정책,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인사문제 등 6개 분야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상권 활성화와 경기 부양이 무주군의 지상과제"라며 피해가 큰 농촌, 소상공인, 청년, 비정규근로자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윤정훈 의원은 "무주군 농림해양수산 예산 1,000억 시대에 농업 예산들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반값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대가자가 725명에 달하고, 읍면별로 지원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반값농기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과정 개선,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영에 관하여는 면밀한 시장분석과 소통, 자가 선별비 차등 지급제를 도입하여 매취가격 결정 및 농산물 선별상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무주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무주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2018년 이전 수립된 50억 이상 관광분야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노후한 구천동 집단시설지구와 관광특구, 구천동 33경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비율이 저조한 현실도 꼬집었다.

황인홍 군수는 "집단지식지구 노후 대책 추진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거쳐 관광특구지역의 발전을 기하고, 내년도 무주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통해 제7차 전북관광개발계획 실행계획에 구천동 33경 활성화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옛지명 복원(안) 97개 확정

### 일본식·한자식 지명 고유지명으로 복원

진안군은 14일 옛지명 복원(안) 97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부터 이틀간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협력해 옛지

명 복원 전문가그룹 워크숍을 갖고, 사라지거나 왜곡된 우리 고유 지명을 되찾기 위한 복원(안)을 확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6월까지 관내 등록

지명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150개의 옛지명 복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7월 1차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해 옛지명 복원(안) 90건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4개월여간 향토사학자 등 지역전문가의 자문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수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진안군의 지명, 행정지명 등 총 1,000여개 중 97개의 명칭 변경 대상지를 확정된 것이다.

명칭변경안이 확정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21년 12월~22년 3월까지 주민의견 최종 수렴 △22년 3월부터 지역 지명위원회 및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및 국토지리정보원고시를 통한 명칭변경 확정 △22년 6월부터 행정구역 조례 개정과 도로명 및 기반시설의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14일 옛지명 복원(안) 97개를 확정했다.

# "적극적 청년 정책·태권도 특성화고교 필요"

###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 질문을 통해 인구절벽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청년 정책추진과 태권도 특성화고교 지정 운영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대형 관광개발 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과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해결방안을 따져 묻고, 이상 기후 영농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과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임야 임대사업의 확대, 관내 화장장 설치 등도 촉구했다.

유송열 의원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지적하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관련 지원이 없는 상태"라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전·월세 50%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정책, 인구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의 대폭 확대 시행 또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군



수의 의지와 대책을 물었다.

황인홍 군수는 청년 주거 대책으로 "내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대한 임차료 지원이 예정돼 있고, 2023년부터는 가능한 모든 무주택 청년들이 전월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원금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다섯째 이상으로 확대한 지원 검토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 말했다. 일자리 대책에 관하여는 "내년부터 무주형 영농정착지원금,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지원 프로젝트 등 자립기반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권도·관광 특화 특성화고교의 지정 노력에 대한 질문도 눈길을 끌었다. 유송열 의원은 "무주군에서 태권도 분야 특성화고교가 운영된다면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인구대책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성화고교 운영의 긍정적 효과에 공감한다 하면서도 "특성화고교의 지정이 교육청 소관업무에 해당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군수의 답변에 대해, 유송열 의원은 의견수렴을 비롯한 특성화고교 추진노력을 행정 차원에서도 적극 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부속도 검사 연중 지원

장수군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가축분뇨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로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부속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해당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100%를 위탁 계약에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선 '부속 중기', 1500㎡ 이상이면 '부속 후기' 또는 '부속 완료' 상태의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배출 전 퇴비 500g을 시료봉투에 담아 가급적 24시간 내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270-2873)로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진안홍삼축제 추진위원회 제4차 총회 개최

진안군은 14일 군청 강당에서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제4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 추진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2021 홍삼축제에 결산 보고와 향후 홍삼축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된 진안홍삼축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비대면 온라인 축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상황에 맞는 개최가 추진됐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진안홍삼을 주제로 구성된 참여형, 시청형, 이벤트 축제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에서 사전 참가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됐고, 군 공식 유튜브 채널인 '빠방TV'를 통한 행사 역시 많은 시청자수를 기록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수삼, 홍삼 제품 판매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좋은 성적 거둬

올해 4월부터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를 첫 시행한 무주군이 군 단위 부문 전국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

비스를 평가한 결과 임신부를 위한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군 단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로써 군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2천만 원을 받아 임신부와 가입여

성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됐다.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는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임신지원 관련 서비스를 임신 확인 시 또는 임신 초기에 '통합신청' 하고 신청된 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